

2018년 제5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2018. 5. 30 (수) 14:20~17: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공공미술위원장 등 23명
- ◆ 안 건 : 심의 2건, 보고 2건

구분	심의 및 보고(자문)
심의(2)	① 은평 평화의 소녀상 등 건립 심의
	② 윤관 장군 동상 이전 심의
보고(2)	①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현황 보고
	② '서울의 시작' 추진 검토 보고

- ◆ 심의결과: 승인(1건), 보완(1건)

□ 위원 발언 내용

000 : 신규 위촉 위원 소개, 제5차 공공미술위원회를 시작하겠음.
2건의 심의와 2건의 보고가 있음. 보완 재 심의 은평 평화의 소녀상·기념비 건립과 윤관 장군 동상 이전 심의 건과 보고
안건으로 '녹사평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 '서울의 시작' 검토보고 건이 있겠음

심의 1. 은평 평화의 소녀상 등 건립

000 : 해당 작가분과 건립추진위원회 신부님께서 배석하셨음

000 :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보고 드림. 작년 5월부터 준비위를 가졌고, 10월 발대식 개최하여 지역 종교계 인사와 정치계 인사분들과 장벽을 없애는 장을 열었음. 이후 청소년 위주로

협의를 거치고 작가를 선정하였음. 그리고 은평구 어느 지역에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 설문조사를 거쳤음. 평화공원쪽으로 2,700여명, 물빛공원 2,000명 정도 찬성을 해주셔서 선정했으며, 은평구 평화공원쪽으로 최종 선정했으나, 최적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시유지였음.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였음. 이후 간담회 후 평화공원 이용객들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도 등을 2월 22일과 5월 25일에 역촌오거리에서 설명회를 추진하였음. 홍보활동을 하였고, 웹툰작가의 작품안도 받고, 명패석과 표지석을 수정보완 하였음. 의자는 단순화 하여 밸런스를 맞추었음.

000 : 지난 심의시 좌대 설명판의 규모가 과대했고, 소녀상이 중심이 되는 디자인 변경을 요청하였음. 주민 공청회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동의절차를 요청 하였음. 두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온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겠음.

000 : 조각 활동하다가 1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해왔음. 은평구와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계획하였음.

000 : 학생들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저와 목사님 스님들과 시민단체 등이 높게 평가하는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음. 공청회와 주민동의 관련 관내 9개 성당과 많은 개신교와 불교계에서 2~3만 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후원과 참여를 통해서 동의를 한다고 여겨짐

000 : 지난번 심의 시 위안부 소녀를 기리는 것인지, 후원자분들을

기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좌대가 크고 수정 요청하였는데, 후원자, 기금자들은 아예 없애고 벤치 같은 형태로 변경을 하였음

000 : 지난번보다 부담이 없어지고 노력한 것 같음. 그런데 바닥재료를 이 재료를 써야하는지 궁금함, 소녀상의 좌대 곡선과 바닥재가 맞지 않음. 바닥조성에 대한 예산금액도 많음. 블록이 저렴한 재료인데, 이해 어려움. 보행로와 화강석의 선이 어울리지 않음. 그런 부분이 공원에 어울리게 하면 좋겠음

000 : 잔디를 놓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만 하면 될 것 같음.
바닥부분만 수정 보완 요청하면 될 것 같음.

000 : 잔디나 흙에 디딤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음

000 : 도시공원위원회에 추진할 때 녹지적 개념 속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음.

000 :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권장하고, 승인으로 결정하겠음

심의 2. 윤관 장군 동상 이전

000 : 현재 동상을 해체한 상태로 보관중에 있으며 을지로 5가 훈련원 공원으로 옮기는 건으로 설명 부탁함

000 : 현재 경의선 옆 서소문역사공원에 위치한 윤관장군 동상의 위치를 이전하고자 함. 높이 좌대포함 12m임. 동상은

1980년에 설치하였고, 고려 세종때 국토확장과 자주적 국방의 업적을 쌓아 널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인물로 여겨지며, 역사공원은 2018년 8월 완료 예정임.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에 따라 2013~2014년 파평윤씨 대종회와 5차례 협의를 거쳤고, 2015년 동상심의위원회 심의 상정한바 있으나 관련성 부족으로 보류되었고, 이에 따라 파평윤씨 대종회에서는 장충단공원으로 변경을 요청함.

2016년 6월에 서울시 동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가결한 바 있으며, 2016년 10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상정 장충단 공원과 역사성 장소성 부족 이유로 부결한 바 있음. 그래서 2017년 훈련원 공원으로 이전요구한 바 있음.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훈련원 공원으로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 40-3번지에 있음.

동대문역사공원역과 을지로 4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 지상부 공원, 지하 주차장과 제조시설이 있음. 훈련원공원 체육관이 지상부에 있으며,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음. 이전하고자 하는 부분에 화강관석이 조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 야외 의자가 설치되어 있음.

대상지 선정 사유는 파평윤씨 대종회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장충단공원 이전 부결함에 따라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훈련원 공원은 조선시대 병사들의 무과 시험과 무술 강습 훈련소이며, 시민에게 조선시대 호국정신의 고취를 위한 역사적 장소와 부합한다고 고려하였음. 최근 역사적 장소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시민 공원으로 선정함.

이전 계획으로는 동상을 해체하고 보수 복원하여 공공미술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추진할 예정이며, 해체, 보수를 통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2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임.

관리주체는 파평윤씨 대중회이며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예정임. 저희 주관부서 의견은 윤관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조선시대 군인들의 훈련 장소였던 훈련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관련부서 협의 결과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는 서소문역사공원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 우선 검토 요청하였으나 서소문공원과 윤관장군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이전을 추진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구 공원녹지과 의견은 훈련원 공원 시설물 포화상태이나 주관부서에서는 기존 시설물을 조정하여 동상설치 면적의 87% 증가하고 녹지면적 15% 감소하나 시설률 40% 이내로 이전이 가능한 상태임.

000 : 공공미술위원회는 동상 이전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텐데 심의 통과 후 지난번 장충단공원 이전 때처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전에 조율되거나 협의될 수 있는지

000 : 예측 불가함.

000 : 동상의 상태는 어떠한지 38년 지난 동상인데

000 :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해체하여 보수한 상태임

000 : 지금의 좌대 형태와 바닥판석 등 규모 그대로 설치하는지

000 : 판석은 조금 축소하여 설치할 계획임

000 : 1980년대 설치된 동상이라 12미터 정도 되는 동상인데,
지금은 좌대를 낮추는 추세인데 거기까지는 고려가 가능한지

000 : 종친회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함

000 : 훈련원공원 위쪽 공병단 부지는 정화작업이 끝나가고 국방부
사업부지로 알고 있음. 그렇게 되면 공병단 부지내도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훈련원공원까지 역사적 장소로
검토를 할 예정임. 문화재위원회와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검토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윤관장군은 고려시대
위인인데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선행해야 할 2가지 요소 중 하나는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받아야 함. **훈련원 공원이
조선시대 공원인데 고려시대 위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와 둘째, 최소 중구 구민들만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 **역사적 맥락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함.** 시기가 다른 유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재조명 될
입지**라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님**

- 000 : 추가 질문사항 있으신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000 : 역사적 재조명시 차후 다시 이전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000 : 동상의 경우 작품생애주기가 영구적인 것인지
- 000 : 역사인물과 관련하여 심의가 들어오면 **역사적 정당성, 장소적 정당성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의견 결과를 가져오면 심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 있으니 검토 보완 요청**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000 : **보수된 현재 사진의 보완도 필요함.**
- 000 : 높이도 너무 높고, 그 입지에 조화가 어려움
- 000 : 000 교수님의 의견대로 **장소의 역사성을 검토한 후 이전은 상관하지 않고 설치 시 예술성에 대해 심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000 : 이전 **희망부지에 역사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 보완,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조감도(설치 후의 상황)를 예상할 수 있도록 보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000 : 향후 **전체적인 재구성이 예상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지

000 : 2가지 다 필요함. 정례적으로 **역사적 검토와 중구청이
훈련원 공원 일대에 대한 향후 계획 검토가 필요함.**

000 : 조선시대와 고려시대가 공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000 : 이런 조건들을 달아서 보완요청 하겠음

보고 1. 서울의 시작 추진 검토보고

000 : 지난 4차 회의 때 보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시점임.
최초로 서울의 시작은 환영포지를 예술적으로 바꾸고자 작년
1월부터 공공미술 자문회의를 거쳐 시작되었음. 17년 5월에
시민의견 조사 시 시민환영포지 교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당초 서울의 문으로 일반 작품 공모하여 5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문의 형상이어서, 공공미술
자문회의에서 부결을 통해 지명공모로 진행되었음. 3명의
위원 추천으로 5명의 작가가 추진하여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음.

처음에는 방화대교 남단 부지에 설치, 최초에는
20~25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요청하였으나 40미터 이상의
작품으로 제안되었음. 예산도 12억 계획하였으나 311억 원
(11억 기초 외 나머지는 기부를 통해 화강석 15cm 모아서
쌓음)으로 완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된 안에 대하여 실현성 및
구체화를 위해 기본용역을 의뢰한 결과 1,000만개 기부
방법에 대한 계획과 하천점용허가 검토 병행을 추진하였으나,

범람의 위험과 시민 위험성에 대한 문제로 불가

이후 타 3개 지역을 추가 검토하였으나 관련법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장소성, 현실성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음.

1안 대상지 변경 검토안은 장소적인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고, 대상지 변경시 탈락한 작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음. 사유지 중 방대한 곳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안으로 예비당선작(000)을 검토하였으나 동일하게 대규모 작품이라 설치가 어려우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사한 작품을 설치중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3안으로는 재공모 검토를 하였으나 3회째 재공모라 부담스럽고 지금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사업 대상지 선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음.

명시이월 예산 12억 원으로 행정적인 부담이 있음. 애초 탈락자에게 1,0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이 있었고, 서울시 설계발주 기준에 의하면 당선작에 대한 실비 차원의 보상기준이 있음

000 :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양대교에 웰컴 사인을 다시 만드는 것이었음. 낡은 것을 새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규모가 커졌음. 결국은 일반 공모에서 안이 나오지 않아 당선작 없음이 되고 지명까지 갔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하여 선정하였으나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불가 방침에 따라 어려운 상황임.

지금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는 시점임. 다시 재공모를 해서 살려본다는 것이 가능할지 난감한 시점임. 혹시 가양대교쪽 교각을 다시 할 방법은 없는지

000 : 자유로 법면도 하천법에 적용됨.

000 : 애초부터 한강 인근에 잡아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작품으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음. 난지공원, 골프장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부지가 있지 않는지

000 : 한강 공원부지도 대규모 구조물은 공원조례에 따라 어려움

000 : 올라가고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의미를 살려서 공원 내 시설물은 20%까지 가능한데 면적이 워낙 커서 들어갈 것 같고 설령 시설물로 보더라도 그쪽으로 보던지 한강유역 하천부지에는 못하는 것이므로 서울시 부지가 있는지 보면 좋겠음. **현재 통일 논의가 되고 있으니 북쪽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유역이나 하천부지 말고 부지를 찾아서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반드시 강 옆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서울의 시작이던 되지 않는지

000 :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다음 회의 시 심의안건으로 올려주기 바람

보고 2. 녹사평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추진 현황 보고

000 : 용역이 선정되고 5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음. 큐레이터, 조경부분에 대한 구체화와 작가에 대한 기획을 추진하였고,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함. 예술작품에 대한 부분은 미술전문위원, 전체 구조적인 측면은 건축, 조경 부분 위원들을 구성하고자 함. 매주 티팟과 협의를 추진하면서 소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용역사와 협의하려고 함. 오늘 보고는 착수보고 형식으로 10분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함.

000 : 위워님들 중에 사업 심사 참여하신 분이 계신지

000 : 지난 위원회에서 제안서 보고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협상을 거쳐서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토대로 착수보고 하겠음.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큰 차이가 있음. “느린 도시, 다른 삶”이 가능한 큰 컨셉임. 운영 프로그램과 작가와 전문가, 지역 활동가를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획하였음.

협상하면서 공간이 크고 작품이 돋보이려면, 예술 공간화하는 공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여 그 부분을 강화하였음. 국내외 주요 작가들이 참여하기 위해 예산조정을 하였음. 작품 과정과 비용을 높이고 소프트웨어를 줄이는 기획 변경을 줄여서 협상절차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하 4층, 5층에 대한 모호한 컨셉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음. 협의체

구성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며, 메인홀에
중요작가를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5월 25일경 계약을
완료하였음.

계획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음. 메인공간, 지하4층 작은
정원공간, 지하 5층 플랫폼 공간임. 메인 홀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며, 공간 환경을 하나의 갤러리화 공간으로
정비한 자체 예산을 2억을 책정하였음. 실내정원을 조성할 때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조정하였음.

메인 홀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공간임. 실린더 안의 공간은 안과 바깥 공간으로 구분되며,
안의 공간은 여러 소재로 막혀있어서 정비를 해도 공간이 잘
보이지 않음. 공간 안쪽을 갤러리 화하는 것으로 함. 현재
하얀 벽면이 지저분하여 정비, 매탈 패브릭이나 유리소재를
가지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통일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작가는 지명공모 형식으로 추진하여
3명의 작가를 선정할 예정이며, 작가 제안을 하고 1달여정도
작가공모를 통해 설계, 시공하는 공정으로 추진하려고 함.
작품을 설치, 시공하는데 시간소요가 많아 압축적으로
추진하려고 함. 3명의 작가 중 첫째 000 작가를 제안함.
시와 협의하여 제안하고 있음. 000 0000 빛을 활용하는
작가라 잘 맞겠다고 생각함. 양수인 작가는 건축적으로
활용하는데 의미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함.

지하 4층 작은 공간은 정원이라는 컨셉을 가져가면서
압축적으로 식물정원을 만들 수 있고, 유일하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임. 식물정원은 4층 작은 공간을 활용하며, 벽면과 계단은 정비하고 정원이 조성하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벤치와 같은 작품들을 제작하여 설치할 예정임. 스튜디오 L이라는 팀과 협의하여 추진하면 좋은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함.

지하 4층 라운지 공간은 예술적 접촉이 가능한 공간으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의 벽면은 철거하고 코팅메탈 판넬을 철거하고 벽면들을 중점적으로 갤러리 공간을 조성하겠음 벽면과 천장을 중심으로 작가들에게 제안하여 작품을 설치하겠음.

지하 5층 전철을 내리면 바로 보이는 플랫폼 공간으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올라가는 공간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임. 모든 곳을 손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간을 정비하겠음. 엘리베이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과 기둥들도 환경정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4층, 5층 전체를 보타닉 스테이션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3명의 작가가 협업하여 추진. 000 작가와 000, 0000의 작품과 연계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계획임.

자연가게 & 갤러리 공간은 작가가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판매행위는 작가의 퍼포먼스로 표현될 것이며, 시민운영체와 청년작가가 하나의 활동적인 작품으로 제안한 것임. '제로랩'에서 추진함.

반짝 정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시민참여를 통해서
꽃이나 작물들을 키우는 작품을 추진하자는 것임
'별의별사무소'에서 추진함

서울그린트러스트 기관과 함께 만나 협력 파트너로
자문역할을 할 계획임. 운영협의체가 잘 구성되면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행정과 결합한 그룹을
조성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팀으로 결합할 예정임.
열린 운영 및 협의체로 구성해나갈 계획임.

온라인과 홍보채널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녹사평역 예술역과 같은 네이밍을
정하고 홈페이지를 조성하여 꾸준히 홍보 접촉을 강화하겠음.

시작할 때 착공식과 같은 행사를 통해 붐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7월 중순 경 시작하는 의미로 녹사평역에
초대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포럼형식도 만들어
볼 계획임.

000 : 지명 작가와의 접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000 : 공식적으로 추진하진 않았고, 큐레이터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000, 000 큐레이터를 선정하였음. 000와
000 0000 작가와 접촉을 시작하였음.

000 : 3명의 지명도가 차이가 남. 000 0000은 000와 같이
지명도가 높으며, 000은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는데 같은

선상에서 추진이 가능한가? 작가들이 참여한다는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 나머지 4~5층의 작가들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지

000 : 4~5층은 지정할 수 있어서 작가를 제안 한 것임.

000 : 건축관련하여 어떤 지점에서 개입하여 진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000 큐레이터도 진행방향을 설명해주기 바람

000 : 예산이 변경되었고 작품쪽에 집중되어 있고, 공간자체가 현란해져 있기에 별도로 조성할 계획임. 000 작가를 초청한 것이 보타닉과 연계하고자 함. 000 큐레이터는 000와 000 0000과 접촉하고 있는데, 제약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 와중임. 완성도 있는 작업을 지정하고, 여지가 있는 부분에 공모하기를 원했으나 현재 행정 프로세스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제약이 다소 있음.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가를 지정할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나 프로세스상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려하고 있음.

000 : 000 작가가 공모로 들어와야 한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음

000 : 지명공모로 확정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000 : 협상내용에 명기되어 있어 추진상 쉽진 않음. 미술관의 행정절차와는 차이가 있음.

- 000 : 000 작가는 될지 안될지 모르는 공모에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000 : 두 작가가 오면 좋겠지만,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음. 임의로 작가 지정을 할 수 없음. 지명공모 방식으로 퀄리티를 담보해보자는 조향이었으니 000 작가와 협상해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함
- 000 : 4층의 경우 5억을 소요해서 작가를 지정할 수 있음
- 000 : 행정적 절차상 어렵다고 판단됨
- 000 : 바꿀 수 있는가?
- 000 : 바꾸기 어려움.
- 000 : 조성완료 후 누가 관리하는지. 지하철 역사이므로 역무원이 관리하는 것인지. 메트로가 도쿄스테이션처럼 메트로안에 공공미술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인지
- 000 : 관리는 공사에서 추진해야 함.
- 000 : 협약은 공사-용산구-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000 : 콘텐츠 조성하고 운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일본의 경우 별도 회사가 구성됨. 작품 설치하는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함.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함. **지속가능성 부분의 경우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어느 기간에 어느정도 개입하는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서울시나 메트로가 예산을 수립해야 함. 단순히 실내정원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추가 운영방안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함. 작가가 하더라도 모든 작품에서 맥락을 같이하여 추진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됨. 만드는 시민참여, 운영관리의 시민참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000 : 그 부분을 신경을 쓰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해야한다는 팀이 나옴.

000 : 2차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야 함. 메트로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메트로가 책임지고, 협상과정상 용산구에 있는 지역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문화재단과도 협의 중에 있음. 6개월 시범운영이 있었는데, 협의체 구성 후 위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000 : 처음부터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함.

용산공원 자체에 등지산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게 남산으로부터 걸어가는 자락을 잘라 사거리를 만들었고, 그 지하에 녹사평이 있는거라..., 그래서 지난번에 용산공원화는 둘째문제고 땅에 대한 역사, 어느 부분에는 요고만 짜서 녹사평 전체 마스터플랜 개념이 없어서, 문화사업 부분과 그 관련 부분에 확대대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함.

- 000 : 서울시가 아트 스테이션과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 운영할수 있는 곳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물리적 사업으로만 생각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음. 우리가 손댄 것은 일정부분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음. 그렇지 않으면 미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000 : 지금 작품은 아예 만들어두고 3년 뒤가 되면 아예 철거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아예 3년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음
- 000 : 컨셉에 있어서 3작가 모두 어떤 컨셉으로 이 작가들을 선정한지 알 수 없지만, 000는 자연으로 하니까 잘 맞겠지만 000 작가는 자연과는 괴리가 있어보임. 그게 위가 태양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 빛으로 될 것으로 보임. 아까 000 작가 등 좋아보이나 자칫 잘못하면 따로따로 작품으로 보일 수 있음. 어쨌면 이 3개의 큰 느낌이 혼합됐을 때는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장처 부분을 명확히 해서 관리부분을 체크해야 할 것 같음. 작가 분들이 이후 작품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걱정이 됨. 선정으로만 끝날 게 아닌 것 같음
- 000 : 4층, 5층을 한꺼번에 보신건 잘한 것 같음. 그리고 작가들이 협업한다는 것도 마음에 듭. 그러나 단순 협업으로는 작가들의 진짜 퍼포먼스가 다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음. 아예 3팀에게서 안을 받으시고, 큐레이터가 있으니 큐레이션을

받아가며 진행해 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음. 시간이 부족해 하는 소리임.

그리고 스케치 공모를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텐데, 그 스케치를 공모과정에 공유해야 할 것 같음.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은 작가의 몫이지만 그 과정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 어딘가 렌트가 남을 것임. 그리고 공모를 할 때, 3명 작가를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할 거고 ..등의 방식도 미리 얘기해주고, 큐레이터가 이미 있음을 안내해 줌이 작가들에게도 연결을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음.

홀은 2팀 정도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음. 제시된 작가가 진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음. 우리가 이 홀에 있는 작품연한의 정리를 해야함. 그 이후에 작품이 없었을 때 1가지 색깔, 재료로 통일한다. 그럼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단 소리니 지금 시점부터 그 이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함. 공모를 할 때 3명이든, 5명이든 그 공간에 대한 배경도 같이 받아야 할 것임. 물론 큐레이션을 할 거지만, 작품만 제안하라고 하면 협업으로 진행함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봄.

그리고 이게 지하철 공간인데, 유지관리가 제일 걱정임. 비용이 과연 도장 수준으로 되는 건지 걱정임. 마지막으로, 공간을 제한하신 데 찬성하는데, 남은 공간이 있음. 나머지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이 장소는 공사판인 것임. 아마 공사기간이 꽤 될건데,,그냥 팻말 놓고 하시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전에 말씀하신 시민참여 얘기를 떠올려서

조그만 파빌리온 이든 공간이든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시민들과 만나는 것도 계속 거기서 만나고, 가설로 간단하게 만들어도 좋음. 다만 시민들과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뭔가 그런 과정 중심의 유지되는 시민과의 접점공간이 있었으면 함. 항상 우리 사업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음

000 : 녹사평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일평균 2200~2400명 정도라고 대답함)

000 : 지명작가 명단에서 000, 000 0000 나오면 그 이름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 게 있음. 다 망해도 이 작가들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음. 하지만 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듦. 굳이 그런 세계 작가 아니더라도 국현에 젊은 건축가, 현대카드에서 추진한 프로젝트 초대 작가들 명단만 뽑아도 꽤 될 것임. 그사람들이 지명공모 할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임.

4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작가들 600만원 정도로 개인전을 하고 있음. 그래서 이것을 고맙게 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굳이 000가 이거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음.

이런 유명작가 이름에 기대지 말고 더 신선한 작가들을 모을 방법을 고민했으면 함. 계속적으로 지명방법은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레벨의 국내작가들 중 한다는 작가 수두룩할 것임. 지하 5층에 메인홀 지명공모 작품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지만 승강장 지하 5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중요함. 타고 내리는 사람이든 지나치는 사람이든 ‘여기 바뀌었네’ 정도로의 시민의 소극적인 개입은 걱정스러움. 2개의 엘리베이터 박스 사이를 벽면을 만들어 칠을 하던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적인거에 고민해주시기 바람.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 사이트 분석하면서 전체 역사가 어두침침해서 빨리 지나치고픈 공간이 되고 있어 밝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조명 건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님.

그러나 어딘가에는 밝은 빛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곳곳에 포인트 정도 몇 곳은 좀 밝게 돼서 눈이 저절로 갔으면 좋겠음. 빛의 효과를 좀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음.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기 바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세금임. 젊은 작가들은 정말 꿈도 못꿀 금액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진행해주었으면 함.

000 : 플랫폼만은 3명의 작가 연결과 별도로 따로 좀 심플하게 작은 공모를 내면 안되는지. 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 보임. 조명, 미술, 조경, 건축, 미술 등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공간임.

000 : 승강장에 어떤 것이 되었던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조명의 연결이든 다른 무엇이 되었던 강렬하고 남는 무언가가 하나 정도 있으면, 조명의 연결이든 다른 뭐가

되든 저렴하게 돈안들이고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어떨까함. 그 공간, 그게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내리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좋을 것 같음.

000 : 처음 제안한 조명 부분을 포함해서 작가들과 구체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음.

000 : 오늘 설명 잘 들었고 잘 부탁드립니다. 공공미술 위원회 회의에 장시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